
전시 공간의 장소정체성과

타자화된 인간 전시 양상 연구:

김애란의 「침묵의 미래」, 편혜영의 「만국박람회」를 중심으로

한아름 (전북대학교, 객원연구원)

< 목 차 >

- I. 문제 제기
- II. 전시대상물로 타자화된 인간과 부조리한 경관
 - 1. 언어박물관: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장소상실의 공간
 - 2. 만국박람회장: 자극적이고 유희적인 무장소성의 공간
- III. 내부자와 외부자의 장소정체성과 피상적 내부성
- IV. 지정학적 권력 개입과 서사적 의미 구현 양상
- 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김애란의 「침묵의 미래」와 편혜영의 「만국박람회」를 대상으로 현대소설에 재현된 전시관의 장소정체성을 살핌으로써 작품에 함의된 작가의 사회문화적인 주제 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문지리학자 에드워드 켈프의 이론을 적용하여 장소 정체성의 구성 요소로 물리적 환경과 인간 활동, 의미로 세분화하여 전시관의 정체성과 전시관에 대한 정체성을 분석할 것이다. 내부자와 외부자의 경계와 분리된 소속감은 사회 구조 속에 만연한 권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표상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와 내셔널리즘의 현실 논리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살펴보고, 환상의 기법을 통해 물리적 현실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인물들

의 무의식과 심리적 현실 인식도 함께 다루려 한다. 이는 문학작품 속에 표상된 전시관의 장소성을 분석하여 인간 활동의 차이의 관계를 만드는 권력의 구조를 문제 삼고 지정학적 시각에서 서사적 재현 양상을 의미화한 작가의 문학적 실천과 사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주제어: 장소정체성, 전시관, 장소상실, 무장소성, 부조리한 경관, 피상적 내부성, 지정학

I. 문제 제기

현대사회는 전시의 사회이다. 한병철은 “사물들이 모두 상품화되어 전시되지 않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현실을 전시사회로 규정하고 사물들의 제의가치가 전시가치에 밀려 사라진다”¹고 단언한 바 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진열된 상품들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경관들, 길에서 무심히 마주치는 광고 모두 전시사회의 부속품들이다.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 체험관, 역사기념관, 박람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관이 사회 곳곳에 위치한다.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작가의 생애나 작품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상품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홍보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연출과 설명들로 전시공간을 채운다.

전시관은 기억과 복원의 공간이다. 따라서 공간 재현의 문제는 전시관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존이라는 존재 가치로서의 제의적인 의미보다는 전시적 연출에 따른 효용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전시관을 구성할 때 시간적·공간적 범주를 정하고 실재처럼 전시물을 재현하는 작업은 전시관의 테마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전시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시공간의 영역은 공간 기획자들에 의해 하나의 표상으로 구축된다.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전람회와 박람회 등 전시관의 장소정체성과 전시체계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집약되어 있다. 하지만 문학 분야에서 전시 공간은 주요한 서사 장치로 오래 전부터 활용되었지만, 여

1. 한병철, 『투명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4, 29쪽.

전시 연구 바깥²에 위치한다. 소설에 재현된 전시공간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일은 전시공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경험,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자본주의적 전시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이다.

김애란의 「침묵의 미래」와 편혜영의 「만국박람회」는 제목에서 연상되는 바와 같이 전시관의 장소정체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소설 텍스트이다. 두 작가는 소설의 주요 배경으로 언어박물관과 만국박람회장이라는 특수한 전시 공간과 중앙 통제를 받는 가상의 시대를 설정하였다. 이 두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소설의 중심 배경이 된 전시관의 형성 과정과 전시 연출의 구성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야기-공간이 환경이 파괴된 시공간성을 배경으로 국가 주도 하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시관을 건립하고, 경제 발전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생산된 전시관은 비본질적이고 무목적성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문명'과 '미개(낙후)' 대립물로 인간 전시가 식민주의적 전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인물 주체가 존재의 사라짐을 경험하는 열린 결말이 주요한 서술 장치로 사용되었다.

소설의 주요 배경인 전시관의 장소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글은 인문지리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장소 경험을 둘러싼 실존이라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인간의 지각과 실천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인문 지리는 특정한 시공간의 세계 속에서 인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소설 장르를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이야기 세계에서 작가에 의해 반영된 현실 세계는 인간의 삶의 양상과 인물들의 인식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서사구조는 “시공간의 변화와 인물, 환경의 상이한 선택에 의해 결정”³된다. 소설이라는 재현 형식과 전시관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작가의 서사 전략에 따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의미를 형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연구를 위해 먼저 장소의 정체성을 이루는 기본 요소로 에드워드 렐프가 제

2. 작가 계용묵은 「인두지주」(『현대한국단편문학전집』 8, 문원각, 1974)에서 광장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전시 대상인 사람거미를 주요 인물로 형상화하였다. 변신모티프와 인물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 있지만 전시 공간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없다. 한혜선, 「'거미'로의 變身과 脫身 연구」, 『이화어문논집』 12집, 이화어문학회, 1992, 317~335쪽.

3.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285쪽.

시한 ‘물리적 환경·인간 활동·의미’를 중심으로 소설에서 전시관의 정체성이 이 세 가지 요소로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에드워드 렐프는 애착과 상실이라는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장소 정체성을 강조한다. 그는 “중요한 것은 ‘장소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그 ‘장소에 대한 정체성’이다. 특히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내부인으로서 경험하는가, 외부인으로 경험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⁴고 주장한다. 소설에 재현된 전시관에서 등장인물의 삶과 공동체의 성격을 탐색한 후에 전시관을 둘러싼 타자성과 물질화된 인간성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장소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맺는 관계의 성격을 분석하여 인간 존재의 문제와 제도적으로 주체를 타자화하는 권력의 구조를 탐색하려 한다. 첫째로, 기후와 자연환경, 건물, 표면적이고 관찰 가능한 ‘물리적 환경’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언어박물관과 만국박람회장의 경관 속에 드러나는 특성들을 ‘장소의 정체성’으로 파악할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물질적 배경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활동’을 내부자와 외부자의 분리된 영역을 중심으로 소속에 따른 경험과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진단한 장소성의 사회문화적인 의미와 기능을 바탕으로 권력의 구조에 따라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차이가 무엇인지 밝히고, 작가가 소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서사적 재현의 ‘의미’로 논의를 확장하여 연구의 의의를 규명할 것이다.

김애란과 편혜영은 2000년대 소설과 21세기 문학을 진단하는 자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다. 두 작가의 작품을 함께 다룬 연구는 없지만 평론을 중심으로 김애란과 편혜영의 문학적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김예림은 김애란의 작품이 “존재의 상실과 결여의 문제를 ‘포용과 긍정’의 윤리와 ‘애착과 놀이’의 윤리”⁵로 풀어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편혜영의 경우에는 그로테스크의 미학에 주목하여 공포에 기반한 금기가 ‘무너지는 경계’ 안에서 이미지화되는 양상을 주요

4.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2005, 110쪽.

5. 김예림, 「두 도시 이야기: 김애란과 편혜영 읽기」, 『오늘의 문예비평』 68호, 2008, 오늘의문예비평, 37쪽.

한 특징으로 보았다. 또한 일상으로 침입한 재난과 신체성의 상상력이 도시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 사유하는 계기가 된다고 의미화하였다. 손정수⁶는 2000년대 한국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사라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새로운 경향의 소설을 분석하면서 편혜영이 그로테스크한 시체를 형상화한 것과 달리 김애란은 가족애의 환상을 그려낸다고 평가하였다.

학술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각이 나타난다. 김애란은 가족 서사⁷, 일상성⁸, 청년세대⁹와 자본주의와 빈곤¹⁰을 주제로 논의되었다. ‘엽기적인 시체의 환상’이라는 표현으로 호명된 편혜영은 ‘종말 의식과 괴담’¹¹, 공포와 재난¹², 야

6. 손정수, 「사라진 이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오늘의 문예비평』 61호, 2005, 오늘의문예비평, 46~60쪽.
7. 권유리아, 「김애란 소설에 나타난 친밀감의 착시와 연극적 가족진리」, 『동북아 문화연구』 1권 48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151~168쪽; 서은경, 「‘가족모티프’의 측면에서 바라본 김애란 소설의 변모 과정」, 『돈암어문학』 33권, 돈암어문학회, 2018, 65~98쪽; 우미영, 「현대소설과 가족의 탈근대: 윤성희·김애란·강영숙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1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31~52쪽; 유옥, 「가족 결핍의 새로운 시선과 성장소설: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1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6, 209~233쪽; 황영경, 「성장공간과 가족사 구성 변이의 의미망-김애란의 『플레이테이터리코더』, 전경린의 『강변마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6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7, 319~343쪽.
8. 이평진, 「현대소설에 나타난 ‘일상’ 재현의 의미와 ‘주체’ 서사 연구-정이현,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6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375~397쪽; 「도시적 일상’의 서사, ‘소비 주체’의 정치성: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27권,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153~164쪽.
9. 오윤주, 「김애란 소설에 드러난 청년 모티프의 21세기적 변주-내일 없음을 대처하는 젊음의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3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227~252쪽; 장미영, 「청년의 고립된 자아와 디스토피아적 상상력-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2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331~361쪽.
10. 김미현, 「주체의 궁핍과 ‘손(手)’의 윤리-정용준, 김영하, 김애란의 소설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19호, 구보학회, 2018, 529~558쪽; 정윤희, 「‘신빈곤’에 관한 문학적 서사: 김애란의 소설 집 짓이 고인다」, 『세계문학비교연구』 44권,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2013, 531쪽; 「편의점의 ‘거대한 관대’와 현대 소비 자본주의 도시적 삶-김애란의 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 『세계문학비교연구』 57권,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2016, 65~88쪽; 홍용희·장주영, 「계급적 공감과 욕망의 기표에 관한 고찰: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3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4, 125~149쪽.
11. 신수정, 「종말 의식의 재현과 휴머니티의 기원-2000년대 한국 소설의 목시록적 상상력」, 『한국문예비평연구』 3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283~314쪽; 이광호, 「시체들의 괴담, 하드코어 윈터랜드-편혜영 소설과 모더니티의 엽기진」, 『아오이 가든』 해설, 문학과지성사, 2005; 홍덕선, 「파국의 상상력-포스트목시록 문학과 재난문학」, 『인문과학』 57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5~39쪽.
12. 김미현, 「21세기 재난소설의 ‘비장소’와 경제 사유-편혜영의 재난소설 3부작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9권, 이화어문학회, 2019, 186~207쪽; 김은하, 「후기 근대의 공포와 재앙의 상상력-편혜영의

만과 반문명¹³⁾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작품에서 나타난 존재의 유형과 실존의 재현 방식을 문화사회적으로 해석하는 연구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서사미학의 새로운 변화와 다양성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두 작가를 소설사적으로 탐색하는 비평 흐름이 발견된다.

이 논문에서는 김애란의 「침묵의 미래」와 편혜영의 「만국박람회」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소설에 형상화된 전시관의 장소성을 물리적 환경과 인간 활동, 의미라는 세 층위로 세분화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작가가 보여주려 한 장소 상실의 공간, 무장소성의 부조리한 경관에 내포된 사회적 타자화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려 한다. 작가가 서사 구조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전시관 표상의 원시성과 전시 장소의 타자성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담론의 차원에서 재현의 방식에 드러난 작가의 서술 방식과 작가 의식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간의 경계를 나누고 공동체와 인간의 일상생활과 움직임을 제한하는 권력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상적인 내부성이라는 장소정체감이 소속과 역할에 따라 등장인물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형성되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익숙하게 확인되는 작가에 대한 미학적 평가를 보완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최종적으로 성격이 다른 두 작가가 공통적으로 다룬 전시관의 장소 체계의 지정학적 관계를 규명하고, 서술 방식으로 드러난 사회문화적 의미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다루려 한다.

II. 전시대상물로 타자화된 인간과 부조리한 경관

1. 언어박물관: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장소상실의 공간

김애란의 「침묵의 미래」의 주요 배경은 ‘소수언어박물관’이다. 이곳은 “지구상

『재와 빨강』, 『비교한국학』 21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3, 109~140쪽; 오혜진, 「출구없는 재난의 편제, 공포와 불안의 서사-정유정·편혜영·윤고는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8호, 우리문화회, 2015, 319~345쪽.

13. 박혜경, 「문명의 심연을 응시하는 반문명적 사유-천운영·윤성희·편혜영의 소설」, 『문학과사회』 18권 2호, 문학과지성사, 2005, 192~210쪽; 송주현, 「야생과 문명의 변증법-편혜영 소설 연구」, 『한국문화연구』 24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3, 121~143쪽.

에 사라져가는 언어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알린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거대한 규모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기념관인 동시에 학습장, 연구소, 민속촌”(17쪽)으로 계획적으로 건설되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낯선 고장의 불모지에 급하게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중앙의 계획에 따라 순식간에 공사를 마친 천여 개의 전시관은 인공 경관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천여 개의 전시관은 각 지역의 고유한 기후와 풍경, 자연재료와 전통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지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어딘가 어색하고 볼품없는 모양을 하고서였다. 스티로폼 위로 성의 없게 페인트칠을 해놓은 바위며, 플라스틱 소재의 야자나무, 기둥과 마루 이음새마다 시멘트 자국이 거칠게 남아 있는 원두막, 각 부족의 특징을 다 무시하고 아무 데나 세워놓은 백인 마네킹 등이 그랬다. 각 전시관은 인공 연못과 언덕, 대숲과 오솔길을 따라 드문드문 이어졌다. … 이곳을 디자인한 이들은 한 부족과 다른 부족 사이에 충분한 공간과 거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존 인구가 총 세 명이 안 되는 나라라고 해도 그들이 수천 년간 쌓아온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쉴 만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이 필요했다. 이곳이 정말로 무언가를 ‘보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랬다. 비록 실물이 아닌 모형이라는 걸 모두가 자각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너무 가짜의 느낌이 나서는 안 됐다.¹⁴

소수언어박물관은 타자 지향적인 장소이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보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가짜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재구성된 전시관은 ‘부족의 특징을 다 무시하고’ 동일하게 만든 ‘장소상실(placelessness)’의 공간이다. 소수언어박물관에 전시대상으로 존재하는 소수민족의 실존을 위한 곳이 아니다. 관람객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에만 치우쳐 고유한 특색이 없는 인위적이고 획일화된 공간으로 복원되고¹⁵ 만들어졌다. 물리적 공간으로서 소수언어박물관을 구성하는 전

14. 김애란, 「침묵의 미래」, 『제37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 2013, 18~19쪽. 이하 인용문은 인용쪽 수만 표기함.

15. “복원(restoration)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일반 대중은, 그리고 공공 기념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건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총체적인 파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유물도 건질 수 없을 정도의 파괴이며, 파괴된 것을 거짓 기술(記述)하는 데 따르는 파괴이다.” N. D. Ruskin J.,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New York: E. R. Dumont, 에드워드 램프, 앞의 책, 219~220쪽 재인용.

시대상물은 소수 언어의 사용자인 원주민이다. 하지만 백인 마네킹을 아무 데나 세워둘 정도로 공간을 연출할 때 부족의 특성이나 고유한 전통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경관과 장소의 재현에 있어서 형태적 측면의 복원 위주일 뿐 의미와 상징을 포함한 총체적 재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¹⁶ 토속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은 ‘문화재’라는 명목으로 동일한 공간에 갇혀 관람객들에게 전시된다.

소수언어 사용자들은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시적 연출을 위해 수집되고 강제 이주를 당한다. 문명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제거 대상이자 전시대상으로 전락한 토착민들은 비진정성의 세계에 갇힌다. 한병철은 “자본주의 경제는 모든 것을 전시의 강제 아래 복속시킨다. 오직 전시적 연출만이 가치를 생성한다.”¹⁷고 말한다. 중앙정부의 “절대적 권력을 통해 표출되는” 비진정성¹⁸의 장소에서 소수언어 사용자들은 인간 존재의 개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통제에 따라 움직이도록 타자화된다. 소설에서 소수언어박물관은 ‘인간 동물원(Human Zoo)’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간의 문화와 생태를 전시하려는 인종차별적인 전시행태는 인간인 원주민을 관람객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전시관의 물리적 구성물로 도구화된 원주민은 희소성을 나타내는 문화 기호이지만 언제든 사용되고 버려질 수 있다.

중앙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세계를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 단지를 세웠다. 결과는 그 반대였다. 그리고 그건 중앙에서 내심 바라는 바이기도 했다. 그들은 잊어버리기 위해 애도했다. 멸시하기 위해 치켜세웠고, 죽여버리기 위해 기념했다. 어쩌면 처음부터 모두 기획된 거였는지 몰랐다.(20쪽)

중앙 정부가 소수민족을 애도하고 기념하는 것은 ‘구별 짓기’의 전략이다. 소수언어박물관에서 기념물로 복원된 원주민들은 피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16. 전중환·서민철·장의선·박승규,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8, 313쪽.

17. 한병철, 앞의 책, 32~33쪽.

18. 진정하지 못한 실존은 직접적이고 실존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순수한 신념 체계를 반영하기보다, 오히려 틀에 박혀있고 작위적이며 부정직하고 남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에드워드 켈프, 앞의 책, 179~180쪽.

발터 벤야민은 복제에서 빠져 있는 예술작품의 유일무이한 현존성을 '아우라(Aura)'로 표현하면서 제의 가치보다 전시 가치가 강조되면서 예술의 신비적이고 종교적 요소가 제거된다¹⁹고 보았다. 소수언어 사용자는 현존재이지만 마치 기념비처럼 물상화되어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고유성이나 역사·문화적 기억은 전시연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기념비, 추모지, 박물관, 기록물보관소 같은 물리적 수단에 의지하고 있는 매체상의 기억과는 구별”되는 “시대의 증인들이 갖고 있는 경험기억이 미래에 상실되지 않도록 후세의 문화기억으로 번역되어야 한다.”²⁰고 주장한다. 소수언어사용자들은 오랜 전통과 고유한 관습을 지닌 문화 전수자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시관에서 그들은 민족성이 제거된 채 획일적으로 구획된 공간 안에서 멸종 위기의 전시적 의미만 부여받을 뿐이다.

자기의 상징적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물화된 인간 주체의 타자성은 자신의 집인 고향을 잃어버린 장소 상실의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소수언어박물관을 탈출한 원주민이 힘들게 자신이 살던 곳을 찾아가지만 마을은 더 이상 예전 모습이 아니라 “먼지바람이 이는 황량한 평원이 끝도 없이 펼쳐져”(29쪽) 황폐화되어 있다. 마을의 자연경관은 ‘다 잘려 처참하게 박힌 나무’처럼 훼손되었다. 멸종 위기에 놓인 소수민족은 뿌리 뽑힌 존재들이다.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대표하는 문화적 표상으로 자격을 부여받지만,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한다. “어떤 문화적 산물이 목적으로서의 위치와 가치를 상실하여 단순히 수단이 되었을 때 그것은 인간에게 향유될 수 없는 것”²¹이 된다. 언어박물관에 전시된 소수 민족 개개인은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네킹에 불과한 전시물로 수단화된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기속사에서 살면서 “기념관에 있을 때만 ‘자신’인 척 할 뿐, 해가지면 ‘중앙’ 식으로 지어진 방에서”(21쪽) 중앙 식으로 먹고 자며 생활해야 한

19.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역, 민음사, 2005, 200~202쪽.

20.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채연수 역, 그린비, 2011, 15쪽.

21. 김희, 「현대 문화의 물상화: 집념의 문화 이론의 경우」, 『현상과인식』 18권 2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94, 43쪽.

다. 용변도 중앙 식으로 보도록 자유를 빼앗기고 규율에 따라 행동하도록 관리되는 타자적 존재로 살게 된다.

소수언어박물관은 전시관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의 물리적 환경도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공장으로 가득 찬 인위적인 공간이다. 서브토피아는 “목적이나 관계에 어떤 패턴도 가지지 않고 인위적 구조물을 아무 생각 없이 섞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직접 경험이 아닌 지도나 계획에 의해 개발된 곳으로 “전선과 고속도로에 의해 구획되고”, “무작위로 위치한 점과 지구의 집합”처럼 “하나의 목적만을 수행하며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채 오로지 도로하고만 연결”²²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 데까지, 자동차도, 공룡화석도 아닌 겨우 ‘사라져가는 언어’나 보자고,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오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19쪽) 전시관의 지리적 입지와 경관은 주변 경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서브토피아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한참 뒤, 나는 저 아래 펼쳐진 풍경에 압도돼버리고 만다. 박물관을 에워싼 야트막한 언덕 너머로 방사선 모양의 도로가 끝도 없이 나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도로 사이로는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공장이 셀 수 없이 뺨뺨하게 들어서 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뜻밖의 소수언어박물관이 있었다. 평소 담벼락 역할을 했던 언덕과 큰 원반 모양의 평지가 박물관 주위를 공터 비슷하게 에워싸고 있지만 그 너머로는 까마득한 공장, 또 공장이었다.(32쪽)

셀 수 없이 가득 들어선 공장부지에 위치한 소수언어박물관은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박물관이 있는 장소는 자연이나 인문환경이 고려된 관광지가 아니다. 획일화된 산업 단지 중심에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의미 없이 들어선 소수언어박물관은 공장처럼 규격화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설계된 곳이다. 소설에서 전시물로 있던 마지막 화자가 죽은 뒤에 ‘나’와 ‘우리’로 호명된 언어가 한 번 더 죽게 되는 장소가 지옥처럼 뜨거운 ‘공장’임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전시관의 물리적 환경은 언어박물관이 여타의 공장과 다르지 않은 자본주의적인 생산 체계로 이루어진 인공적인 장소정체성을 지니고 있음

22. 에드워드 렘프, 앞의 책, 223~225쪽 참조.

을 보여준다.

2. 만국박람회장: 자극적이고 유희적인 무장소성의 공간

편혜영의 「만국박람회」에 재현된 전시관의 물리적 환경도 소수언어박물관처럼 국가 주도로 조성되어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시대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구성된 전시회장은 “끝을 알 수 없게 넓고 복잡하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시회장 앞에 늘어선 천막들이 박람회 때 다 쓰일지”(144쪽) 의문이 들 정도로 의미 없는 건축 구성물로 채워져 있다. 인공 경관인 박람회장을 만들면서 도시를 상징하는 나무 등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무분별한 개발로 수해가 발생하여 도시 주민들은 자신의 터전을 잃게 된다.

정작 도시를 물에 잠기게 한 것은 폭우가 아니었다. 폭우는 예보된 것이었다. 하수구의 범람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박람회장의 토사가 소도시의 하수구를 틀어막았다. 집이 잠긴 것은 역류한 하수 때문이었다. 집들은 구정물과 분뇨, 빗물이 어우러진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박람회장과 인접한 낮은 지대 집들의 피해가 특히 컸다. 그 집들은 가구와 옷가지와 공책 따위를 모두 잃었다.²³

수재민들은 갑자기 집을 잃고 박람회장 천막을 임시 거처로 삼아 지렁이를 잡아먹으며 오물과 오수가 넘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공동체 내에서 사기, 도난, 폭력 등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일상화되고 아이들이 수렁에 빠져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까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박람회 개최를 강행한다. 그 이유는 수해로 하락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도시 지역민들의 실존 문제나 생활세계를 복구하는 일은 정부와 국가 기관이 정책을 세우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애초에 소도시의 작은 행사쯤으로 여겨졌던 박람회는 수해 때문에 신뢰를 잃은 국가 기관에 의해 무게 있게 다루어졌다. 정부는 수해 복구 약속을 하기도 전에 박람회 준비를

23. 편혜영, 「만국 박람회」, 『아오이거든』, 문학과지성사, 2005, 147쪽.

서들렀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는 수해로 먹칠이 된 이미지를 만회할 좋은 기회였다. 이로 인해 토목, 철강, 시멘트, 기계, 서비스 등 모든 업종이 혜택을 입을 거였다. 도로와 항만 등 공공시설은 폐막 이후에도 도시의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박람회를 위한 모든 투자가 결국은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바닥을 향하고 있는 국가 신용도를 높여줄 터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람회 개최였다.(152~153쪽)

에드워드 렐프는 만국박람회처럼 “미래적이고 혁신적인 것, 혹은 시대를 의식적으로 앞서가는 경관을 창조하는 것은, 기술의 표준화 원리에 기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새로운 스타일과 테크닉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계속해서 장소를 파괴하며, 마침내 시간과 전통이 장소에 부여한 진정성까지 부인해 버리기 때문”²⁴에 진정으로 ‘국제적’이면서 ‘무장소적’인 것이라고 언급한다. 수해로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파괴된 도시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만국박람회장은 ‘새로운 시대와 미래, 낙관적이고 기계적인 기대와 희망’을 전시한다고 홍보된다. 국제대회가 열리는 이 장소는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전시장의 물리적 환경은 방문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성이 제거된 채 인위적으로 연출되고 기획된 상업 시설의 속성을 지닌다.

“박람회에 전시될 것은 전부 진보와 문명, 과학과 관계있는 것”(146쪽)이지만, 만국박람회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박람회의 성격이나 개최 의도와 동떨어진 미술사의 공연이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사실 미술사의 공연이지 변방이나 다름없는 국가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아니었다.”(153쪽)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에 대해 진정하지 못한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매체’가 ‘무장소성(placelessness)’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한다고 말한다. 미술이라는 형식의 홍보 매체는 지역이나 국가의 특성과 무관하며, 전시대상물과의 연결성도 약하다. 또한, 일회성의 미술 공연은 만국박람회장을 특별한 장소로 만들기보다는 관람객들에게 비슷한 장소경험을 줄 뿐이다.

편혜영의 소설에서 더 많은 관람객들을 모으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시기획자는 박람회에 적합하지 않은 세계적인 미술사의 공연을 개막식 전면에

24.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221쪽.

내세운다. 마술 행위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나 재주를 사용해 허상을 실재처럼 보여주는 유희적인 공연이다. 전시공간인 박람회장은 문명이나 진보, 과학을 연상하는 전시품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고 인상적인 사건과 행사로만 기억될 뿐이다. “향유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문화적 산물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반응은 탐욕”이며, “물상화된 문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반응은 향락적인 태도”²⁵이다. 주거공간과 일터를 잃은 사람들은 만국박람회장에서 운수를 점치거나 사기, 도박 등 유희적인 행위들로 장소를 경험한다.

원숭이가 삼촌에게 침을 뱉고 똥을 싸다.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저지른 행동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삼촌은 무자비하게 원숭이를 때렸다. 원숭이의 엉덩이는 분노로 더욱 붉어졌다. 사람들은 그제야 삼촌이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삼촌은 원숭이를 상자에 함부로 구겨 넣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듯이 거칠게 다뤘다. 원숭이가 비명을 질러댔다. 상자에 갇힌 원숭이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삼촌은 잠자코 있으라는 듯이 상자를 툭툭 쳤다.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143쪽)

소설 「만국박람회」에서 주요 전시대상은 폭력에 노출된 사람과 동물이다. 미래적이고 혁신적인 전시품은 소설 어디에도 서술되지 않는다. 동물적인 생존 의식만 남은 사람들은 원초적이고 배설적인 표현이나 비명이나 폭력 등 가학적인 행위에 더욱 주목한다. 전시장 바깥에서 소도시 주민들이 억압당하는 타자를 보고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고 부정적인 현실을 망각하는 것은 공격성이라는 형태로 자기 불안을 감추고 실존적 결핍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려는 행위이다. 폭력을 유희적으로 즐기면서 자신들에게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한 위협을 망각하고 자기를 방어한다. 박람회 홍보물로 사용되는 인간의 폭력성은 전시 대상이 된 또 다른 존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나는 일곱 개의 전시회장 중 불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방의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투명한 유리벽 안에 떼를 지어 살고 있었다. 어두운 전시회장

25. 김희, 앞의 글, 43쪽.

에 그들의 하얀 눈동자가 별처럼 떠 있었다. 그들은 인형처럼 보였으나 사람이었다. 전시될 물품 중의 하나인지도 몰랐다. 그들은 내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걸었다. 유리벽에 막혀 잘 들리지 않았다.(163~164쪽)

김애란의 「침묵의 미래」와 마찬가지로 편혜영의 소설에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전시물품으로 대상화된다. 인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혀 있다. 한병철은 『투명사회』에서 “인간의 영혼은 분명 타자의 시선을 받지 않은 채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불투과성은 영혼의 본질에 속한다.”고 비판적으로 투명성을 개념화한다. 오직 기계만이 투명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즉흥성과 우발성, 자유처럼 투명성을 용납하지 않는다²⁶고 말한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유리벽에 갇힌 전시대상물이다. 인격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만국박람회장을 채우는 소품으로 활용되어 개인의 역사와 민족성을 보호받지 못한 채 장소 경관의 일부가 된다. 만국박람회장의 성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종차별적인 전시물은 이곳의 무장소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낸다.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품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다양하게 살펴보기 어려운 이유는 거대한 규모의 물리적 환경과 전시관의 정체성과는 동떨어진 인공적인 환경과 운영 방식 때문이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끝도 없이 큰 규모 때문에 전시관에서 관람객의 활동은 표면적인 관찰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이로 인해 만국박람회장과 소수언어박물관은 '부조리한absurd 경관'의 성격을 드러낸다. 에드워드 렐프는 “직접 경험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끔찍하게 거대”하고 “지형은 아랑곳없이 수학적 정밀성으로 설계된 합리적 경관과 공업지대의 황폐한 풍경”²⁷에서 부조리를 경험한다고 강조한다. 소수언어박물관과 만국박람회장의 인공 경관은 결국 부조리한 경관을 의미하며 인간의 활동을 한계 짓는 기제로 작동한다. 장소에 대한 정체성은 이러한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며, 전시관에서 타자화된 인간은 일정한 영역과 경계를 자기 안에 두고 이동성이 제한된 채 구조적인 장소 감각을

26. 한병철, 앞의 책, 16쪽.

27.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261쪽.

갖게 된다.

III. 내부자와 외부자의 장소정체성과 피상적 내부성

지금까지 전시관의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전시관의 주요 구성물, 주변 환경, 입지 및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소수언어박물관과 만국박람회장의 장소 정체성을 '무장소성(장소상실)'으로 규정하고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장소 경관과 자극적이고 유희적인 장소의 구성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소속(belonging)에 따른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시대상인 내부자와 이들을 관람하는 외부자로 영역을 분리하여 인간 활동 중심으로 경험의 차이를 논의하려 한다.

김애란과 편혜영 소설에서 전시관을 견학하는 외부자들과 전시관에서 제한된 영역에 놓인 내부자들은 동일하게 '피상적인 내부성'을 드러낸다. 피상적인 내부성은 "장소의 특성이나 의미에는 특별한 감성을 나타내지 않은 채 그냥 장소 안에 있기만 하는 것²⁸을 뜻한다. 내부성은 장소 경험과 긴밀하게 관련되는데 전시관에서는 본질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측면에 집중하게 된다. 전시가치만이 물질적 재화로 인정받는 전시대상으로서의 인간과 이러한 존재를 파편적으로만 감상하는 관람객들 모두 소설의 주요 배경인 장소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서로 유대감을 느끼지 않는다. 관람객들은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재현물을 겉으로 드러난 표상적인 기호로 감상하고, 자극적이고 유희적인 놀이로 표현된 비인간성의 이면만을 구경하고 각자의 거주지로 돌아간다. 내부자와 외부자의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살펴보고, 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곳에는 약 천여 명의 화자가 천여 개의 언어를 지키며 산다. 낮에는 박물관에서 일하고 밤에는 기숙사에서 머무는 식이다. 각각의 기념관은 부족의 특성에 맞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양식에 따라 복원됐다. 하나의 기념관은 하나의 언어를 대표했다. 전시관 안에는 전통의상을 입은 화자가 한 명 이상씩 상주했다. ... 이들은 이곳에서 종종 고

28. 앞의 책, 289쪽.

독 때문에 미쳐가는 자들을 봤다.(「침묵의 미래」, 17~18쪽)

먼저 김애란의 소설에서 전시대상자들의 대표적인 장소정체성은 ‘고독감’이다. 소수언어박물관의 언어 사용자들은 각각의 기념관에 고립되어 있다. 각 언어의 고유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공용어를 배우지도 못하고, 관리자들이 정해진 인사말 외에는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없다. 한나 아렌트는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분리됨으로써 형성되는 타인과의 ‘객관적’ 관계의 박탈, 삶 그 자체보다 더 영속적인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박탈”에 주목하여 ‘고독’에 대해 논의하였다.²⁹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인 가정도 파괴하는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전시관의 장소성은 내부자로서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의 아이를 버리는 일도 당연하게 만든다.

소년과 소녀는 자신들이 죽고 난 뒤 박물관에 홀로 남겨질 아이의 고통을 걱정했다. 다른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잘 아는 크기의 고통이라 그랬다. 설사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누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다. 결국 소년과 소녀는 아이를 내다버렸다. 중앙인처럼 커서 중앙 사람이 되라고 중앙인 차에 몰래 실어 보냈다. 그들은 가슴이 몹시 아팠지만 그 정도의 괴로움은 아기가 박물관에 남을 경우 맞닥뜨리게 될 절망과 외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침묵의 미래」, 27쪽)

전시관에 살면서 언어의 마지막 화자로 일하는 원주민들은 중앙인과 구별된다. 언어만큼 다양한 얼굴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행위는 철저하게 규칙에 따라 행해지며 개별적인 활동도 제한받는다. 박물관에서 경험하는 내부자들의 고독한 생활은 절망과 외로움을 동반한다. 소설에서 소수민족들이 겪는 ‘중이염이나 후두암, 치매, 마음의 병’으로 표상되는 신체적·심리적 질병들은 언어에 대한 향수병으로 치환된다. 기념관에 전시된 소수민족은 개인의 특수성이 배제된 채 규칙과 중앙정부의 관습에 따라 관리된다. 존재의 의미는 삶과 죽음(멸滅)의 차이만 있을 뿐 그들의 사적 영역은 중앙에 의해 통제되며 외부인에게 보이는 그대로 투명하게 전시된다.

중앙 사람은 소수언어박물관의 외부자들이다. 관광객들은 전시물의 ‘일부’

29.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역, 한길사, 1996, 112~113쪽.

만 살펴보고 간다. 이러한 행위로 획득되는 장소정체성은 ‘성취감’과 ‘우월감’이다. “관광객에는 관광이라는 행위나 수단이 방문하는 장소보다 더 중요”하고, “단순히 안내책자에 표시된 별표가 몇 개인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를 경험한다기보다는 그곳을 수집하는 거”³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마이크 크랭은 “여행자와 관광객 모두 그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들이 접하게 되는 경관과 사람들을 미학적 즐거움의 대상으로 환원”³¹시킨다고 지적한다. 김애란의 소설에서도 ‘시각적 점유’를 통해 우월적인 위치에 선 관람객들은 소수민족의 실존이나 사적인 자유를 임의대로 ‘박탈’한다. 비용을 지불하고 전시관에 들어온 외부자들은 행동에 구애받지 않고 기념관 속 화자들을 ‘동물원에 갇힌 짐승처럼’, ‘시험관 안에 담긴 청동기시대의 범씨 품종처럼’ 관찰하고 소비한다.

관람객은 귀에 작은 기기를 꽂고 이들 말을 중앙 말로 걸터들었다. 그러고는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형식적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본 뒤 가끔 무례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방문자들이 귀에서 그 작은 기계를 빼고 ‘관람’에만 열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기념관 앞에 해당 언어에 대한 별 소개 없이 ‘번역불가’ 혹은 ‘연구 중’이라는 뜻말이 붙어 있는 경우가 그러했다. 그런 딱지가 붙은 기념관 속 화자들은 말 그대로 동물원에 갇힌 짐승처럼 앉아있었다. … 그럴 때 이들은 시험관 안에 담긴 청동기시대의 범씨 품종처럼 보였다. 단지 오래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그 사실만으로 어딘가 메마르고 징그러운 인상을 주는. 관람객들은 한 손을 길게 뻗어 이들을 배경으로 자신의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었다. (『침묵의 미래』, 23쪽)

살아 있는 언어사용자들의 인간적인 삶은 기념 대상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균등하게 기획된 전시공간은 그 공간 안에 원주민들을 하나의 전시물로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배치한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생활과 가치보다 추상적·경제적·공공적 이익을 강조하는 접근의 편협성은 심각한 비진정성”³²을 내포할 수

30. 신성환, 「편해영 소설에 나타난 장소상실과 그 의미-집, 일터, 길의 공간 구조 및 인문지리학적 인식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55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382쪽.

31. 마이크 크랭, 「여행/관광」, 데이비드 앳킨슨·피터잭슨·데이비드 시블리·닐 위시본 편저, 이영민·진종현·박경환·이무용·박배균 역, 『현대 문화지리학』, 논형, 2011, 87쪽.

32.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96쪽.

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수익을 내기 위해 공간 구획과 배치 전략에 따라 원주민들을 전시관에 강압적으로 가두고 제어하는 태도에서 억압적인 지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개발 목적으로 원주민들의 터전을 파괴하고 없애는 것은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실존적 의미를 상징하는 원초적 세계를 잃어버리고 고유한 장소정체성을 상실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권력의 인위적인 개입 행태와 돌아갈 곳을 잃고 전시대상물이 된 인간의 상실감은 편혜영의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조상은 산맥이나 깊은 습지에서 은둔 생활을 하거나, 낮은 지방 사람들을 상대로 약탈을 하고, 물물교환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거나, 추운 나라의 한 곳을 차지하고 마술이나 노략질, 사기로 연명했던 사람들이어야 했다. 몇 대에 걸쳐 땅을 일구며 거둬 써를 뿌리고 자손을 늘려가던 사람들이 삼촌과 같은 기형의 자식을 낳았을 리가 없었다. (『만국박람회』, 160~161쪽)

소설에서 주인공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삼촌의 손에 자란다. 삼촌은 아동기에 머문 신장과 커다란 머리통을 가진 기형적인 몸으로 태어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도살이나 싸움, 속임수 따위로' 돈을 번다. '나' 역시 '구걸이나 도둑질, 아니면 도박판의 노리개'로 삼촌에게 이용당하며 자신의 상황에 체념하면서 살아간다. 삼촌으로 대표되는 혈연관계와 사회집단에서 어린 화자가 느끼는 결핍은 현재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없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상실감으로 이어진다. '산맥'이나 '깊은 습지', '추운 나라' 등 원초적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는 자신의 생활환경에 대한 절망적인 태도와 아비투스(habitus)로 드러난다. 아이의 주된 장소정체성은 '무력감'이다. 홍수로 집을 잃은 재난도 아이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안식처로서의 집의 기능이 상실되고 '사적인 장소를 소유³³할 수 없는 아이는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의지조차 갖지 못한다.

33. 바슐라르는 '거주의 행복'을 설명하면서 "행복한 공간", "사랑받는 공간"은 "소유 공간"이라고 논의한다. 즉 인간이 소유하면서 "적대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는 공간"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집이라는 개념의 본질을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 ... 볼노는 "존재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궁극의 신뢰"라는 배경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 없고 거주할 수도 없다고 단언한다.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172쪽, 180쪽)

의미 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한 채 “미래란…… 짐작할 수 없는, 내가 알 바 아닌 시간”(163쪽)으로 여기는 무기력한 ‘나’는 박람회 개막일에 맞춰 투견 경기에서 개의 싸움 상대가 된다. “미래에 대한 궁극의 신뢰가 없으면 사방에서 위협하는 파괴적인 힘에 직면해 애시당초 집짓기 자체를 무의미”³⁴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현실의 열악한 생존 조건에서 유년화자가 장소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은 자신의 신체에도 체현된다. 거주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희망도 잃어버린 아이는 박람회장 안에만 머물며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생존의 위협에 놓인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아이는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한 채 폭력적인 상황에 스스로 내던져진다.

개가 들어오자 거래는 좀더 활발해졌다.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나는 개를 피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개를 피해 도망간다면 나중에는 칼을 쓰는 싸움에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 삼촌은 증오보다 이성적인 것은 없으며 복수보다 정당한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싸움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삼촌 입에서 나오는 태반의 말과 달리 진실처럼 느껴졌다. 개는 자신을 굶주리게 한 인간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성적이고 정당한 것은 내가 아니라 개였다.(「만국박람회」, 166~167쪽)

아이가 자신을 방어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개를 피해 도망간다면 나중에는 칼을 쓰는 싸움에 나서게 될지도 모르’는 암담한 현실을 체화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빈곤은 극복 불가능하다. 부모와 삼촌에게서 대물림된 가난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 ‘자신을 굶주리게 한 인간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개가 오히려 이성적이고 정당하다는 내면 서술은 부정적인 현실에 당연한 적개심조차 갖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타자화된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주인공은 ‘어린이의 죽음은 사소한 일’이며, ‘돈벌이 수단이 사라져 운이 나쁜 일’로 학대가 일상적 토대가 된 환경과 공동체 안에서 자라났다. 문명화된 과학 기술을 드러내는 공간인 만국박람회장에서 내부자의 장소 경험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특징을 보인다. 실존적인 결핍을 지닌 유년화자는 박람회장의 내부에 거주하지만, 내부 공동체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진

34. 앞의 책, 180쪽.

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

소설에서 수재민들은 만국박람회장의 내부자이자 동시에 외부자의 성격을 보인다. 박람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수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은 전시장에서 임시로 생활하면서 정부와 박람회 관계자들의 관리를 받는 종속적인 내부자가 된다. 동시에 박람회를 구경하는 관람객으로 자신과 같은 위치에 놓인 약자를 파편적으로 경험하는 외부성의 영역에 포함된다. 만국박람회의 성격에 걸맞지 않은 자극적이고 유희적인 행위를 소비하면서 전시관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소도시 주민들이 지닌 양가적인 장소정체성은 인간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모순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

삼촌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다른 도시에서 열렸던 박람회를 기억하고 있었다. 거기서 뭘 봤느냐는 질문에 삼촌은 짧게 대답했다. 더럽게 많은 인간들. 그것은 전국 규모이기는 했지만 세계적인 규모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인파가 어찌나 몰려드는지 아이들은 모두 부모를 잃었고, 손을 잡고 있던 부부들은 서로 헤어졌으며, 어슬렁거리던 거지와 개들은 밟혀 죽었다고 했다. (『만국박람회』, 162~163쪽)

삼촌이 오래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외부자로서 경험했지만 그의 기억에 남은 것은 미래와 낙관과 기계들이 아니라 '더럽게 많은 인간'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밟혀 죽은 거지와 개들'이다. 이러한 기억의 잔재들은 박람회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간성 상실의 표상들이다.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는 인간의 불안한 심리와 공간 이해의 상관성을 설명하면서, "고통받는 사람을 둘러싼 공간은 좁고 답답해지기 때문에"³⁵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람회를 피상적으로 체험한 삼촌의 단일한 시각은 그의 피폐한 삶과 장소와 유리된 장소체험을 본질적으로 대변한다.

IV. 지정학적 권력의 개입과 서사적 의미 구현 양상

거주지로서의 장소는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느냐와 관련된다. 거주한다는 것

35. 앞의 책, 304쪽.

은 자신만의 안전한 영역과 도피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김애란의 소설 「침묵의 미래」에서 소수민족에게, 편혜영의 소설 「만국박람회」에서 유년화자인 나에게 전시관은 집이자 일터이다. 하지만 이 거주지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한 처처가 아니라 국가가 진보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도시화를 추진하고 자본을 투입한 공적인 영역 안에 위치한다. 따라서 전시대상물로 타자화된 인물들에게 전시관은 집이라는 사적 영역이지만 진정성 있게 장소를 경험하지 못한다. 물상화된 인물들이 자본 중심으로 배분된 전시공간 안에 귀속되면서 이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관리당하고 개인 공간을 소유하지 못한다.

장소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라고 정의된 지리적 규모”이기 때문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혹은 집단의 행동은 ‘국지화’(localized)된 행동으로 표상되고 전략이 내포된다.³⁶ 이러한 상호작용과 갈등상황을 인식하고 소설에 재현된 권력 관계를 밝혀내는 실천은 작가의 지정학적 상상력을 해석하는 작업이다. ‘지정학geopolitics’은 “지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대상과 실체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³⁷으로 “지정학의 이해는 ‘상황구속적 지식’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다양한 영토에 대한 복합적 실행과 복합적 표상”³⁸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세운 소수언어박물관과 만국박람회장의 운영 방식에서 드러나는 권력 관계의 정치성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전시대상으로 이용당하고 실존적 갈등을 겪는 타자화된 주체의 존재 양상을 전략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논리가 개입된 전시관의 경관은 소설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경관의 중요성은, 사회적 권력과 중요성에서, 또한 그것이 물상화와 물신화하는 사실에서 나온다. 경관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관(형태, 재현, 의미집단으로서) 자체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관이 물상화와 물신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관계에 대해 주목해야만

36. 콜린 플린트, 한국지정학연구회 역,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길, 2007, 35~37쪽 참조.

37. 제라드 토알, 박배균 역, 『지정학Geopolitics』, 데이비드 앳킨슨·피터잭슨·데이비드 시블리·닐 위시 본 편저, 앞의 책, 140쪽.

38. 콜린 플린트, 앞의 책, 38~43쪽 참조.

한다.”³⁹ 부조리한 경관은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진 가짜 세계를 제시하는 거” (『만국박람회』, 155쪽)이며, 공동체의 문화적 유산이나 가치보다는 투자와 경제와 효율성을 더 우선시하는 국가의 정치 체계와 실천 방식을 보여준다.

무의미한 존재로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인물을 전시관의 전면에 배치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국가의 실천 방식을 드러내면서 작가는 인간의 내면적 본질을 파괴하는 자본주의 사회와 내셔널리즘을 비판한다. 원주민과 빈민 계층의 아이가 전시물로 대상화되고 돈이 되는 수단으로 물화된 전시관의 주요 표상은 지배문화를 둘러싼 억압적인 권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전시관에 거주하는 타자화된 인물들의 발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심의 바깥에 위치한 타자들은 하위주체로 부조리한 경관을 체화한다. 김애란이 민족과 인종을 구별하는 식민주의의 타자성에 주목한 반면 편혜영은 계급과 계층으로서의 빈곤의 타자성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었다.

『침묵의 미래』에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소수 언어가 주요 화자로 서사를 이끈다. 이러한 초점화자의 우화적인 서술 방식은 언어들의 죽음과 그로 인한 “침묵”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서사 장치로 “인간적 가치들 역시 존립하기 어려운 세계, 대신 물신(物神)만이 지배하는 차가운 세계의 밑그림”⁴⁰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다. 전시관 내부에서 소수언어는 제도적 권력인 중앙언어로 번역되고 최소한으로만 사용된다. 우언(寓言)이라는 형식의 서술 주체가 내면적인 심리 묘사와 존재론적인 질문(나는 누구일까/몇 살일까/몇 명일까/어디 살까/어찌 될까)을 독백적 어조로 발화하면서 반복적으로 하위주체의 정체성을 구현한다. 작가는 언어 사용자의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까지 간섭하는 권력의 작동을 언어마다 각기 다른 수사와 기호체계로 표출해낸다.

어느 부족의 언어에는 성조가 수십 개다. ... 어느 부족의 시제에는 전생과 환생이 들어간다. ... 어느 나라의 동사는 백오십 번 이상 몸을 바꾼다. ... 어느 민족에게 사랑은 접

39. 돈 미첼, 『경관Landscape』, 데이비드 앳킨슨·피터잭슨·데이비드 시블리·닐 위시본 편저, 진종현 역, 앞의 책, 121쪽.

40. 안서현, 『작품론-〈침묵의 미래〉와 김애란의 작품세계-다시 두근두근, 문학이여』, 『제37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 2013, 91쪽.

속사, 그 이웃에게는 조사다. 하지만 어느 부족에서는 그런 건 본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여 아무런 명찰도 달아주지 않는다. 어느 민족에게 ‘보고 싶다’는 한 음절로 족하다. 하지만 다른 부족에게 그 말은 열 문장 이상으로 표현된다. 뿐만 아니다. 어느 추운 지방에서는 몇몇 입김 모양도 단어 노릇을 한다. (『침묵의 미래』, 25쪽)

작가는 언어의 정령인 ‘나’를 통해 언어의 다양성을 말한다. 소수민족마다 서로 다른 언어에는 문화와 감성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언어박물관의 전시체계는 민족적 특수성과 원초적인 상징성을 담아내지 못한다. 언어는 전시관의 기호체계 안에 일괄적으로 편입된다. “이 어법을 법으로, 또는 권위 있는 규칙으로 변형시키는 사람은 절대 권력을 정당화해 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⁴¹이다. 전시관을 운영·기획하는 이들은 언어 사용자들의 일상성과 다양성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안에 표준화하는 규칙을 만들어낸다.

편혜영의 소설 『만국박람회』에서는 국가 기관의 절대 권력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폭력적인 권력의 양상이 암시된다. 자연재해를 입은 소도시의 현실을 ‘나’라는 아이의 시선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언술하면서 돌봄과 배려가 없는 정부의 무능과 어른들의 이기심을 두드러지게 한다. 아이의 죽음은 사소하고 박람회 개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의 물질만능주의적인 정책은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확인하게 한다. 김애란과 달리 편혜영의 소설에서는 폭력성이라는 신체적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유일한 보호자인 삼촌과 유년 화자의 외적 갈등이 서사를 구성한다.

싸움을 연습할 마땅한 상대가 없어 죽은 개의 몸뚱이나 벽에 붙은 마술사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는 게 고작이었다.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주먹은 바람을 가르지 못하고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럴 때면 삼촌은 내게 매질을 했다. 매질을 하는 것은 그만 큼 이번 경기에 큰돈이 걸렸다는 의미였다. (『만국박람회』, 162쪽)

인간의 내면적 본질이 파괴되고 인간의 고유성을 잃어버린 자아의 모습을 작가는 미지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환상을 통해 표현하면서 결여된 현재적 존재를 드러낸다. 나병철은 “합리적 현실의 균열(틈새) 부분에서” 환상이 출현한

41.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기파랑, 2005, 234쪽.

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균열과 구멍을 메우는 환상 이미지들은 거꾸로 경화된 현실에 대해 전복적인 힘을 발휘”⁴²한다고 주장한다. 빈곤 계층의 삶은 피폐하고 개인의 의지로 가난을 극복하기 어렵다. 어린 화자가 냉소적으로 현실을 인지하고 삼촌의 폭력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소외된 자신의 처지와 물화된 현실세계의 부조리함을 더욱 강하게 보여준다.

날카로운 이빨을 내밀고 다가오던 시커먼 개의 몸뚱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창살이 촘촘히 박힌 네모난 철창도 사라졌다. 경기가 벌어지던 천막도, 팔짱을 끼고 그 모두를 지켜보던 삼촌도 보이지 않았다. 타원형의 전사회장은 분분히 갈라져 먼지처럼 미세한 입자로 사라져갔다. 나는 그 모두와 함께 거대한 힘에 이끌려 알 수 없는 공간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거대한 얼굴을 가진 마술사였다. 마술사는 진심이라는 듯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만국박람회』, 168~169쪽)

소설의 마지막에서 작가는 동일하게 ‘존재의 사라짐’을 환상처럼 보여준다. 박람회장에서 철창 속에 갇혀 투견에게 물어뜯기던 아이는 마술의 일부로 ‘거대한 힘에 이끌려 알 수 없는 공간 너머로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이는 소수언어박물관에서 소수민족의 상징인 언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관 속으로 빨려들어가며’ ‘죽은 뒤 한 번 더 죽는’ 경계에 놓인 결말과 유사하다. ‘거대한 힘’과 ‘거대한 관’은 개인의 역사를 무화시키는 제도와 권력을 의미하는 동일한 기표로 사용된다. 독자는 이러한 지배 구조에 내재된 폭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하위주체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상징계의 질서로 대표되는 전시관의 장소성을 비판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관 속으로 빨려들어가며 내가 마지막 생을 보낸 소수언어박물관과 그곳의 자랑, 중앙분수대를 떠올린다. 그것은 지구본 모양의 특별한 조형물이었다. 유리 구 안에는 갖은 형태의 활자가 분방하게 떠다녔다. 여러 부족의 언어를 홀로그램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거였다. ... 꽃잎 모양으로 갈라지는 지구본 아래로 경쾌하게 쏟아졌다. 나는 그 광경이 항상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악몽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하지만 지구가 꾸고 있는 이 예쁜 꿈이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죽은 뒤 한 번 더 죽으면서도, 나는 그 장면으로부터 쉽게 눈을 떼지 못한

42.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10, 23쪽.

다. (『침묵의 미래』, 33~34쪽)

전시관의 장소정체성을 분석하면서 김애란과 편혜영의 소설에서 인종과 도시 빈민의 구속적인 삶이 재현이라는 체제 안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광이라는 문화 기호로 인간의 일상이 사물화 되면서 비용을 내고 관람하는 외부자와 상품으로 소비되는 내부자로 계층화된 사회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타자의 배제를 당연시하는 국가 권력의 장소 구성 방식은 사회적 위계를 공간 속에 배열하고 위치시키면서 인간을 억압한다. “한국과 같이 국가가 ‘과대 성장’한 경우, 산업 입지 및 도시화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지대”하였으므로 “정치 요소는 경제적 요소와 더불어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다.”⁴³ 소설에서도 공통적으로 전시관이 들어서는 과정에 국가 권력이 개입되고 성장만을 강조한 개발 정책으로 일상적 토대가 훼손되고 인간 활동도 제한되면서 장소의 경관과 정체성은 재규정된다.

장소를 규정하는 주체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외부자이고, 장소의 의미와 실천 방식이 거주민이 배제된 채 재생산되는 양상에서 국가 권력의 부당함과 비윤리적인 감시 체계를 확인하게 된다. 특정 장소에서 문화적 타자가 배제되고 통제되는 부정적인 권력 관계를 작가가 서사적으로 재현하면서 이러한 작가의 문학적 실천은 전시관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시각과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유의 가능성을 제기하게 된다. 두 소설 모두 전시관과 관련된 인물이 자본주의가 만연한 중속적인 환경에 놓여 개인의 자유롭고 의식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장소(로케일)를 중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21세기라는 시공간에 사는 우리에게 전시장소의 식민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 소설을 통해 우리는 하위주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혈연공동체와 민족공동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와 자본의 권력에 휘둘리면서 존재의 의미를 잃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다. 이때 감정적이지 않은 초점화자의 서술 태도

43. 전중환 외, 앞의 책, 401쪽.

와 담담한 어조를 통해 사회 내부의 지배 구조와 헤게모니의 영향력이 강력함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계층과 인종차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응시하도록 김애란과 편혜영은 전시회장이라는 특수한 배경 안으로 주변화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끌어온다.

V. 결론

살아 있는 인간 전시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전시되고 죽어서는 박제되어 인종박물관에 전시된 코이코이족 사르키 바트만(Saartjie Baartman)⁴⁴의 삶은 소수언어박물관에서 관리자들에게 통제되고 관광객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언어사용자의 삶과 다르지 않다. 또한 18세기 후반에 서양인들이 문신을 한 마오리족의 얼굴 미라를 기념품으로 수집하면서 노예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여서 수요를 충족했던 토이모코(Toi Moko)⁴⁵의 사례는 문화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유희적으로 싸움을 도발하고 생명을 억압하는, 관광 상품이 일상화된 만국박람회장의 모습과 유사하다. 김애란의 소설에서 소수언어사용자로 중앙정부에 의해 박물관에 수집된 노예의 삶과 편혜영의 소설에서 박람회장 천막 속에 투명한 유리벽에 갇힌 검은 얼굴들의 서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속적인 존재가 경계 안에 있음을 발견하도록 독자를 이끈다.

지금까지 김애란과 편혜영의 소설에 형상화된 전시관의 정체성을 ‘부조리한 경관’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전시대상으로 소비되는 인간의 타자성으로 나누어 위치로서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상실과 훼손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장소감으로 명명하여 분리된 소속과 영역에 따라 ‘피상적인 내부성’으로 규정하고 전시관의 내부자에게 나타나는 고독감과 무력감, 외부자에게 드러나는 우월감과 성취감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피상적인 감각은 현실 속에서 장소 상실을 경험한 하위 주체들의 장소감을 대변한다. 또한

44. 레이철 홈스, 『사르키 바트만』, 이석호 역, 문학동네, 2011; 문종현, 「〈검은 비너스〉에 나타난 사르키 바트만의 삶」, 『사람』 52호, 수선사학회, 2015 참조.

45. 김경임, 『탈레오파트라의 바늘』, 홍익출판사, 2009 참조.

우리 사회의 모순과 자본주의 하의 여러 문제들을 외면하는 일반 대중의 모습을 전시관의 외부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앞서 진단한 장소감과 생활공간으로서의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통해 전시가치가 존재가치를 억압하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문학적 실천을 살펴보고, 작가가 우리 사회의 모순적인 측면을 서사로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지정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종합해보면, 작가가 전시관의 장소정체성으로 재현하려 한 사회 구조의 모순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전시관의 물상화된 경관과 전시대상으로 간힌 인간의 실존을 문제 삼으며 자본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둘째로, 정부 관리자의 식민화된 사고방식과 내셔널리즘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하여 위계화된 사회 구조와 폭력적인 권력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배 관계는 여전히 우리 현실에서 타인을 억압하고 종속 관계에 놓이도록 만드는 자본의 힘과 배타적인 문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규범을 내면화하여 비판의식을 망각하고 장소를 잃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결국 비극적인 환상으로 사라지면서 모순된 체계의 부정성을 더욱 강하게 환기한다.

전시관의 장소정체성을 연구하기 위해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환경을 포괄하여 물리적 세계의 특성을 규정하고, 전시공간에서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을 내부자와 외부자의 소속감으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인간 활동을 제한하고 차이를 만드는 권력의 실천 방식을 문제 삼기 위해 작가는 전시관이라는 특정 장소를 소설의 배경으로 선택하고 빈곤계층과 인종의 구별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뿌리 뽑히고 차별받는 하위주체의 장소성을 서사적으로 재현하였다. 소설 속 전시관은 우리 주변에서 관람하기 어려운 낯선 경관이지만 익숙한 삶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사람들이 장소에 진정으로 '속해'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노력해야 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작가 김애란과 편혜영은 타자화된 주체의 소멸을 환상과 열린 결말의 장치로 풀어내면서 이를 비극적으로 보여 준다.

참고문헌

- 김애란, 「침묵의 미래」, 『제37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 2013.
- 편혜영, 「만국박람회」, 『아오이가든』, 문학과지성사, 2005.
- 권유리야, 「김애란 소설에 나타난 친밀감의 착시와 연극적 가족진리」, 『동북아 문화연구』 1권 48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151~168쪽.
- 김미현, 「주체의 궁핍과 ‘손(手)’의 윤리-정용준, 김영하, 김애란의 소설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19호, 구보학회, 2018, 529~558쪽.
- _____, 「21세기 재난소설의 ‘비장소’와 경계 사유-편혜영의 재난소설 3부작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9권, 이화어문학회, 2019, 186~207쪽.
- 김예림, 「두 도시 이야기: 김애란과 편혜영 읽기」, 『오늘의 문예비평』 68호, 오늘의 문예비평, 2008, 28~41쪽.
- 김은하, 「후기 근대의 공포와 재앙의 상상력-편혜영의 『재와 빨강』」, 『비교한국학』 21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3, 109~140쪽.
- 김 희, 「현대 문화의 물상화: 짐멜의 문화 이론의 경우」, 『현상과인식』 18권 2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94, 29~46쪽.
- 문중현, 「〈검은 비너스〉에 나타난 사르키 바트만의 삶」, 『사람』 52호, 수선사학회, 2015, 425~448쪽.
- 박혜경, 「문명의 심연을 응시하는 반문명적 사유-천운영·윤성희·편혜영의 소설」, 『문학과사회』 18권 2호, 문학과지성사, 2005, 192~210쪽.
- 서은경, 「‘가족모티프’의 측면에서 바라본 김애란 소설의 변모 과정」, 『돈암어문학』 33권, 돈암어문학회, 2018, 65~98쪽.
- 손정수, 「사라진 이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오늘의 문예비평』 61호, 2005, 46~60쪽.
- 송주현, 「야생과 문명의 변증법-편혜영 소설 연구」, 『한국문화연구』 24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3, 121~143쪽.
- 신성환, 「편혜영 소설에 나타난 장소상실과 그 의미-집, 일터, 길의 공간 구조 및 인문지리학적 인식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55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353~391쪽.

- 신수정, 「종말 의식의 재현과 휴머니티의 기원-2000년대 한국 소설의 목시록적 상상력」, 『한국문예비평연구』 3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283~314쪽.
- 오윤주, 「김애란 소설에 드러난 청춘 모티프의 21세기적 변주-내일 없음에 대처하는 젊음의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3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227~252쪽.
- 오혜진, 「출구없는 재난의 편재, 공포와 불안의 서사-정유정, 편혜영, 윤고은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8호, 우리문화회, 2015, 319~345쪽.
- 우미영, 「현대소설과 가족의 탈근대: 윤성희·김애란·강영숙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1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31~52쪽.
- 유 욱, 「가족 결핍의 새로운 시선과 성장소설: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1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6, 209~233쪽.
- 이평전, 「현대소설에 나타난 '일상' 재현의 의미와 '주체' 서사 연구-정이현,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6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375~397쪽.
- _____, 「도시적 일상의 서사, '소비 주체'의 정치성: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27권,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153~164쪽.
- 장미영, 「청년의 고립된 자아와 디스토피아적 상상력-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2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331~361쪽.
- 정윤희, 「'신빈곤'에 관한 문학적 서사: 김애란의 소설집 침이 고인다」, 『세계문학비교연구』 44권,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2013, 5~31쪽.
- _____, 「편의점의 '거대한 관대'와 현대 소비자본주의 도시적 삶-김애란의 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 『세계문학비교연구』 57권,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2016, 65~88쪽.
- 한혜선, 「'거미'로의 變身과 脫身 연구」, 『이화어문논집』 12집, 이화어문학회, 1992, 317~335쪽.
- 황영경, 「성장공간과 가족사 구성 변이의 의미망-김애란의 「플라이데이터리코더」, 전경린의 「강변마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6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7, 319~343쪽.
- 홍덕선, 「파국의 상상력-포스트목시록 문학과 재난문학」, 『인문과학』 57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5~39쪽.
- 홍용희·장주영, 「계급적 공감과 욕망의 기표에 관한 고찰: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3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4, 125~149쪽.

- 김경임, 『클레오파트라의 비늘』, 홍익출판사, 2009.
-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 _____,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10.
- 데이비드 옛킨슨·피터잭슨·데이비드 시블리·닐 위시본 편저, 『현대 문화지리학』,
이영민·진종현·박경환·이무용·박배균 옮김, 논형, 2011.
- 레이철 흄스, 『사르키 바트만』, 이석호 역, 문학동네, 2011.
-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역, 민음사, 2005.
-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채연수 역,
그린비, 2011.
-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기파랑, 2005
-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2005.
-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이기숙 역, 에코리브르, 2011.
- 전종한·서민철·장의선·박승규,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8.
- 콜린 플린트,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한국지정학연구회 역, 길, 2007.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역, 한길사, 1996.
- 한병철, 『투명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Place Identity of Exhibition Hall and Otherized Human Exhibits: Focused on Kim Ae-ran's "The Future of Silence" and Pyun Hye-young's "International Exposition"

Han, Ah-reu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uest researcher)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ocation of the exhibition hall and the geo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power included in Kim Ae-ran's "The future of silence" and Pyun Hye-young's "International exposition". To this end, I will apply human-geographer Edward Relph's theory to analyze the identity of the exhibition hall and the identity about the exhibition hall by subdividing physical environment, human activities and meaning as the components of the place identity. At this time, the sense of belonging, separated from the boundaries of insiders and outsiders, serves as an important symbol of understanding the rampant power relationship within the social structure. Examining what narrative meaning based on the real logic of capitalism and nationalism that the writer wants to reveal through his literary work is. I also try to deal with the unconsciousness and psychological reality perception of figures who interact closely with physical reality through fantasy techniques. This will be the work of analyzing the placeness of the exhibition hall represented in the literary work, taking issue with the structure of power that cre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ces in human activities,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the author's literary practice and reasons, which means the aspect of narrative reproduction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Keywords: Place Identity, Exhibition Hall, Placelessness, Absurd Landscape, Superficial Insideness, Geopolitics

논문 투고일 : 2020년 3월 23일
심사 완료일 : 2020년 4월 16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4월 19일